

## 야곱의 축복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하고 축복을 마쳤다. 병문안을 온 손자 에브라임은 입양을 통해 아들이 되어 장자의 명분을 받았고 요셉은 세겜 땅을 물려 받았다. 이 축복의 자리에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못했다. 아들들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아들 중 누군가가 받아야 할 장자의 명분이 그 날 입양된 에브라임에게 넘어갔고 세겜도 요셉에게 주어버렸다. 야곱은 다른 자식들이 없을 때 장자의 명분과 세겜 땅을 요셉에게 주려고 했던 것 같다. 장자의 명분도, 세겜 땅도 요셉 가문에 주어버린 야곱이 이제 나머지 아들들을 불러 모은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이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 창세기 49:1-2**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에게는 좋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럴 수가 없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과 동침했고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에서 잔혹한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오래 전 이야기였지만 야곱은 잊지 않았고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도 세 아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르우벤은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고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선언이 있었다.

유다에게는 큰 축복이 주어졌다.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도다’는 축복과 함께 <규>, <통치자의 지팡이>가 언급됨으로써 장차 왕권이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 선언되었다.

스블론은 해변의 무역로를 장악하게 될 것이고 잇사갈은 우직한 나귀처럼 될 것이나 다른 이의 지배를 받을 것이 선언되었다. 단은 심판, 곧 재판장과 같이 될 것이라 하였는데 훗날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됨으로서 성취되었다. 갓은 군사적으로 강할 것이고 아셀은 풍족할 것이었다. 납달리는 누구에게도 잡히지 않은 암사슴처럼 거친 산악 지대에서도 굳건하게 살아갈 것이었다.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대대로 복을 받을 것이었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 처럼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것이었다.

야곱의 유언은 지나간 과거가 반영된 것이었다. 늙고 앞도 보이지 않는 아버지였지만 마지막 남기는 말에는 아들들이 살아온 행적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동시에 미래의 일, 곧 예언이 담겨 있었다. 야곱이 남긴 축복들은 실제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앞 날에 실제로 일어났다. 이리 처럼 물어뜯게 될 것이라는 베냐민 지파에서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나왔다. 요셉의 자손들은 대대로 복을 받았고 장자의 명분을 받은 에브라임 지파는 분열된 이후 복이스라엘의 주도적인 지파가 되었다.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를 언급한 유다 지파에서는 다윗 왕이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로 오셨다.

## 축복에 대한 오해

야곱이 남긴 축복은 무조건 축복이 아니었다. 모든 일을 잊어주고, 덮어주는 리셋 reset 이 아니었다. 삶으로 새긴 죄의 흔적들은 세월이 흘러도 마모되지 않았다. 그 새겨진 흔적대로 야곱은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유언을 남겼다. 그래서 본문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 창세기 49:28**

축복은 모든 잘못을 덮어주고 앞으로 잘 하라고 양 손에 가득 재물을 쥐어주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당신 편이 아니며 손에 쥐어준 재물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올무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죄에는 대가가 따른다. 지나간 죄들이 시간이 지났다고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 모든 죄에는 샅이 있고 르우벤, 시므온, 레위는 그 샅을 자신들 뿐만 아니라 후손들의 삶으로 지불해야 했다. 당신은 샅을 지불할 수 있겠는가?